

정치권, 총선 교통정리 본격화

민주 "현역 의원 20% 교체" 미래통합당 중진 잇단 불출마 물갈이 예고하며 쇄신 경쟁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약재가 속출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대통령 함께 현역 의원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점차 진용을 갖춰가고 있어 전반적인 총선 분위기가 민주당 우세 국면에서 접전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총선 공전에 있어 점차 미래통합당에 밀리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연초만 해도 중진들의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세대교체 및 기득권 내려놓기 측면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선점했으나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고리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잇따른 옹퇴로 전세가 역전되는 흐름이다.

18일에는 조선인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세 번째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는 모두 1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김형오 공판위원장도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옹퇴를 설득하고 공천 과정에서 과감한 진박(진 박근혜)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현역 교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총리와 장관으로 입각한 인사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출마자는 이해찬·원혜영·강창일·백재현·서형수·표창원·이철희·이용득·제윤경·김성수·심기준 등 1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 내외에서는 쇄신 경쟁에서 미래통합당에 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전명한 민주당이 과연 이같은 규모의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인지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약재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8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뒤늦게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해찬 대표 차원의 입장 표명이 없어 사과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 불협화음까지 지속되면서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물갈이하고, 공소장 일부 비공개 방침을 결정한 부분도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태섭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에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를 놓고 물 밑으로 가라앉았던 '조국 논란'이 다시 부상하는 분

위이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소신 발언'을 이어온 대표적 인사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도 경기 남양주시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쟁 상대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사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재선)이어서 '조국 선거' 구도가 짜이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논란이 부상하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표심이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노심조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이탈이 크게 나온 상황"이라며 "당이 총선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데 오히려 약제만 불거지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인영 "경제 활성화 초당적 협력하자"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간

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4·15 총선 공약 가운데 일자리 확충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최영호 "동남권에 건강웰빙지구 조성"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동남권 미래전략으로 건강·복지 혁신벨트 구축,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현하고 건강웰빙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이병훈 "건물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됐으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19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고통분담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고삼석 "선출직 공직자 출세우기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고삼석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가 일부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줄 세우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는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면서 "불공정 공선과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경진 "임동 방직공장 부지 공공개발 추진"

무소속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남·일신방직 공장을 이전하고, 일대를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북구발전 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임동 주민과 전남·일신방직,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면서 "광주시, 전남·일신방직과 협의해 방직공장을 타 지역으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공장 이전 후 부지를 주상복합시설 단지로 공공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공업용지로 묶여있던 약 9만평의 공장 부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 자칫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원주민 내몰림 현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대를 공공시설 위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이용빈 "광산구를 생활체육 메카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열심히 일하고 함께 맘 풀리는 광산구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를 대한민국 생활체육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서삼석 "올 마늘값 폭락 선제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의원은 18일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2019년산 마늘이 2020년 햇마늘 출하시기인 올해 5월까지 이월될 경우 마늘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서 의원은 "농협이 떠안고 있는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비율 확대와 재고마늘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한명진 "SOC사업 지역도급제 의무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명진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지역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돈이 도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 SOC사업의 지역도급제 의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한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살리기 공약으로 지역소멸 극복 상생프로젝트 '예산 1조원의 기적, 다시 사람이 온다'를 발표하고 "지역소멸 위기는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지역민의 도시 이주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SOC 사업예산이 지역 내로 스며들도록 지역도급제 의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정의당 문정은 전 부대표 비례대표 경선 출마

정의당 문정은 전 부대표가 18일 오전 광주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 전 부대표는 "21대 총선은 정의당 청년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라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전면에 청년들을 배치하는 중대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광주청년센터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 호남에서 광주 최초의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고자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안산 571-7658 · 오치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안 222-9054 · 충정 222-8171

남구 · 남부 675-5530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담 973-2900
· 하남 955-9 451 · 광산 944-0444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매가 25.5억 ※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채용 직종 | 채용 인원 | 업무 내용 |
|-------|-------|------------------|
| 영업직 | ○ 명 | 합성목재 영업 |
| 설계직 | ○ 명 |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공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이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에이우드 anywood.com 이노스 INOS

조달우수제품/특허/성능인증/녹색기술/환경표지/KS인증